NEWS RELEASE

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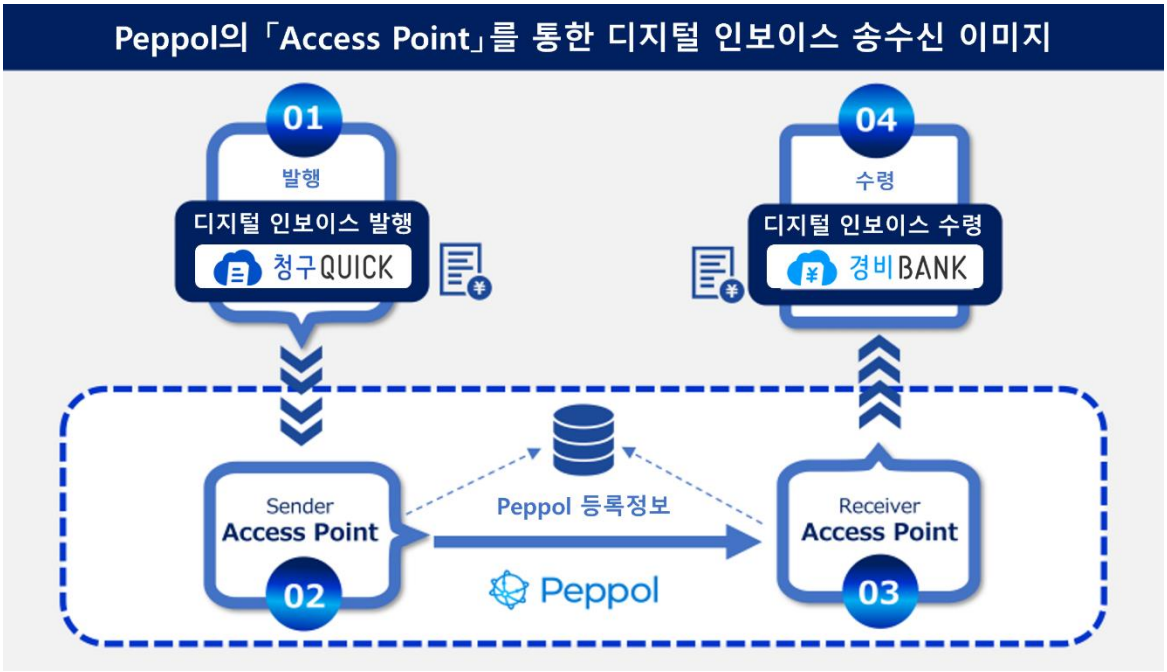
2022년 8월 19일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청구QUICK」「경비BANK」가 Peppol에 준거한 디지털 인보이스의 송수신 대응

~ 중소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인보이스에 대응하여 경리DX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이하「당사」)는 당사 제공의 클라우드 청구서발행시스템「청구QUICK」및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경비BANK」의 디지털 인보이스 송수신을 통한 Peppol 대응방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디지털 인보이스 및 Peppol 대응방침

당사는 자원이 한정적인 중소기업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인보이스 제도 등의 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퍼스트어카운팅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모리 케이타로, 이하「퍼스트어카운팅」)의 AccessPoint와 제휴하여 Peppol에 준거한 형태로 청구서(디지털 인보이스)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청구QUICK」에서 Peppol 대응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경비BANK」에서 Peppol에 준거한 청구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청구QUICK」에서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복잡한 소비세 계산과 발행 청구서의 전자보존에도 대응합니다.「청구QUICK」및「경비BANK」의 각 대응 시기가 명확해지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퍼스트어카운팅 주식회사의 Peppol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staccounting.jp/news/20220800

■ 배경

일본의 원격근무 실시 저해요인 중 하나로 청구서 관련 처리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등 경리 업무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 및 페이퍼리스화를 촉진하는 업무개선 툴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시행 예정인 인보이스 제도는 소비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매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여 BtoB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비록 소상공인에게도 파급이 큰 법 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구서 발행인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기재의무와 전자보존 등의 제약이 부과되는 것과 더불어 수취인에게도 수령한 청구서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청구서(인보이스)」여부 확인이나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별로 복잡한 세율계산과 청구서의 전자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등, 기존의 종이로 수령하여 운용하던 방식으로는 경리의 업무부하가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날로그에서 단숨에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법 개정 대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일본의 디지털 인보이스 표준사양(JP PINT)의 책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Peppol에 준거한 디지털 인보이스가 보급되면 유저 간 데이터 연계 및 업무자동화를 통해 업무 시간의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해져, 뒤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리DX를 단번에 가속시켜 백오피스 업무가 크게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목표

디지털화에 의한 효율화가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당사가 제시하는 2023년의 「경리DX원년」을 향해서 거국적으로 대처를 추진하고 있는 Peppol에 준거한 디지털 인보이스의 송수신 가능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본의 경리DX에 공헌해 나가고 싶습니다. 일본 전국의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첨단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법 대응은 물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친화 서비스 설계와 안심할 수 있는 가격으로 백오피스로부터 DX를 추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벤더로서 고객의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인보이스 제도에 대하여

「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인보이스 제도)」은 매입세액공제(과세매출에서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를 공제하는 것)를 받기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소정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적격청구서(인보이스)」는 세무서에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인보이스의 보존 등이 필요합니다.

※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about.htm

Peppol에 대하여

「Peppol(페폴)」은 청구서 등의 전자문서를 네트워크상에서 주고받기 위한 국제표준사양으로, 벨기에의 비영리조직 「Open Peppol」이 관리하고 있으며 약 40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 9월 디지털청이 Peppol관리국(Japan Peppol Authority)이 되어 일본의 표준사양(JP PINT)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청구서발행시스템 「청구QUICK」 개요

「청구QUICK」은 웹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청구서발행시스템입니다. 청구서를 웹에서 작성・승인・발행할 수 있으며, 전국의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입금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소프트 연계로 청구서발행과 관련된 사내의 업무 플로우를 명확하게 하여 청구서 발행부터 입금확인, 회계처리까지의 작업을 효율화 할 수 있습니다.

※「청구QUIC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eikyuquick.sbi-bs.co.jp/

<「청구QUICK」 운용 이미지>

■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경비BANK」개요

「경비BANK」는 월 1,500엔부터 이용 가능한 웹브라우저 기반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청・승인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지불의뢰와 지불 예정표에 의한 지불관리, 경비집계에 의한 경비분석, 계좌이체 데이터 및 회계 데이터 작성 기능을 탑재하여 경리업무 효율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신청서 커스터마이즈나 유연한 승인 워크플로우 설정 등으로 기업 형태별 경비정산 업무를 시스템화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물론 천명 이상의 대기업까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부 보존법에 따른 청구서와 영수증 데이터 저장을 추가비용의 발생없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I-OCR 옵션과 조합해 사용하면 청구서・영수증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도 기표와 신청작업이 가능해 작업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경비BAN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b2.sbi-bs.co.jp

<「경비BANK」 운용 이미지>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활동의 중축인 경리담당자를 위하여 백오피스 업무의 DX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객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진심으로 대응하여 백오피스 차원에서 경영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력이나 자금과 같은 리소스가 부족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갈 것입니다.

■ 당사 개요

회사명	: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설립	:	1989년 9월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자본금	:	3억 5천만엔 (자본준비금 등 포함)
사업내용	: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URL	:	https: //www.sbi-bs.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